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2022년 9월 23일(금) 오후 8시
신당역 10번 출구

참여단위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공간엘리사벳,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민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실천여성회 판, 워드유센터
움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학생회, FSC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이꿈이 : 새말 (믿는페미)

반주 : 백현빈 (기타) 민아름 (피아노/기독교여성회)

1. 타종과 함께 침묵기도

2. 예배로의 초대 - 여성시편 13편¹⁾

1.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당한 폭력을 외면하시렵니까?

여기 불법촬영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에 맞섰고, 끝내 죽음 당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2. 언제까지 딸들이

불법촬영과 협박으로 일상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자매들이

스토킹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러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3.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과 무감각, 무저항이란 잠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두 눈에 불을 밝히시어

현실을 똑바로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4. 젠더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이들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혐오가 아니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힘없이 비틀거릴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젠더폭력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그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1)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성서언어연구반 엮음,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 (여성신학사, 2005)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3. 찬송 - 입례송

입례송

Em7 Asus4 Dadd9 Em7 Asus4 Dadd9

이제 우리여기이렇게 모여있으니 주여 우리가운데로어서오소서 절망
서로 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 신이함 깨하 심을 느끼니 이제

우 리여 기 모여 있 으니 우 리가 운 데로 오 소서 절 망
손 길과 웃 음과 위 로를 당 신이 함 깨 하 심 느 끼니 이 제

G Asus4 A F#m7 B7 Em7 Em7/A Dadd9 D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이 시간 당 신께 다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어 디 있 든 지 무슨 일 을 당 하 든 지 더는 혼 자 가 야 님 을 깨 달 게 하 소 서

과 고통 속 에 있던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당 신 께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어 디 있 든 지 무슨 일 을 당 하 든 지 함 께 함 을 깨 달 게 하 소 서

4. 우리의 기도 | 박소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5. 현장의 발언 1 | 여름 (무지개신학교)

현장의 발언 2 | 춘풍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현장의 발언 3 | 황보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 찬송 - 두려워마세요

$\text{♩} = 66$

G C Bm Em Am D G

두려워 마세요 당 신에겐 친구가 있어 요

G C Bm Em Am D G

포기 하지 마세요 주 님도 우릴 붙들잖아 요 *Fine*

C Am B7 Em C Am D7

세 상 은 우리 가 하 는 말 을 몰 라 요

C Am B7 Em C Am D7

우 리 가 흘 리 는 눈 물 의 뜻 도 몰 라 요 *D.C. al Fine*

7. 말씀 읽기 | 에베소서 2장 1-10절 (새번역) | 이은혜 (한국YWCA연합회)

[1]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특송 | 이수현 (기독교여민회) "시편 6편"

9. 말씀 펴기 | 장근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교회협 여성위원회)

"슬픔·기억·연대, 복이 있다."

10. 결단의 찬양 -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원제:우리 함께 보리라)

고형원



우 리 오늘 눈 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다



꿈 꿀 수 없 어 무너진 가슴 에 저 들 의 푸 른 꿈-다 시 돌 아 나 도 록-



우 리 함 께 땅 흘 려 -소 망 의 길 을 만-든 다



내 일 로 가 는 길 을 찾 지 못 했 던 저 들 노 래 하 며 달 려 갈 그 길



그 날 에- -우 리 보 리 라 -새 벽 이슬 같 은 저 들 일 어 나



뜨 거운- -가슴 사 랑 의 손 으 로- 이 땅 치 유 하 며-행 진 할 때



오 래 항 쟁 하 였 던-이 땅 어 디 서 나 순 결 한 꽃 들 피 어 나 고-



푸 른 의 의 나 무 가- 가 득 한 세 상 우 리 함 께 보 리 라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11. 알리는 말씀

12. 파송 및 공동축도 * 모두 일어나서 | 이영분 (기독여민회/교회협 여성위원회)

■ 파송

인도자: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을 통해 일상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여성들, 그리고 함께 분노하고, 울고 맞서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젠더폭력, 모든 혐오에 맞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우십시오.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참된 평화, 평등, 자유의 세상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함께: 우리가 젠더폭력(스토킹)에 희생당하는 이들이 다시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가 이들의 곁이 되기 위해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 공동축도

인도자: 생명의 하나님, 젠더폭력에 몸부림치며 스러져간 고인을 기억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젠더폭력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이들, 일상의 평화를 간구하며 살아내는 수많은 소수자 및 약자들 위에

다함께: 그리스도의 온기로, 생명의 따스함을 흘려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열사 안아주시고 서로의 곁이 되기를 다짐하며 흠어지오니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나아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아멘.

13. 공동 헌화 * 다같이 신당역 추모공간으로 이동해 함께 헌화합니다.

매일 저녁 7시 추모문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를 위해 협조해주신 공공
운수노조 여성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후원

김수산나, 정다은, 최은영, 정혜진

단체 후원

움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위드유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
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서울YWCA,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믿는페미,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YWCA연합
회